

# 順興邑內里「京」二例

申 榮 勳

一九七一年 九月 順興邑內里의 金浩春氏宅과 또 한집의 農家에서 마당에 따로 지어 놓은 「京」二點을 조사할 수 있었다.

邑內里 배스정류소 부근에 있는 金浩春宅과 梨大博物館에서 發掘한 述干墓<sup>①</sup>로 올라가는 산기슭 마을의 한 農家에서 各已 一基씩을 조사하였다.

金浩春氏宅<sup>②</sup>의 京은 木造에 초가지붕을 씌운 方形平面이면서 王禎農書<sup>③</sup>에 提示한 基本型과는 다른 점이 있어 주목되었고 담배를 농사짓는 農家의 京은 壁體를 一般의인 板壁으로 하지 않고 土壁으로 처리한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金浩春氏宅 京은 자연석을 뜻어다 놓은 主초 위에 굽직한 角木 네개를 세워 기둥을 삼고 主초로 부터 떨어져 올라간 높은 곳에 下枋을 짜 돌리고 거기에 의지하여 마루를 깔았다. 下枋 위로 板壁을 드렸다. 이 板壁은 널빤지를 橫壘한 咸陽 鄭克相氏宅 京과 달리 넓은 판자를 일으켜 문드러듯 하였다.

板壁 위에 引枋을 두어 벽체를 막음하였고 引枋 위로 다시 開放된 공간을 두고 기둥머리에 창방을 結構하여서 지붕구조를 받게 하였다. (圖 1 참조)

王禎農書의 京이나 一般型의 京에는 引枋 위로 空間을 두어 收藏處로 사용하게 된 부분이 없는데 金氏宅 京은 마치 桐華寺의 뒤추처럼 만들고 그 위에 지붕을 씌워 別造한 특수한 形狀을 갖었다.

기둥과 문과 판벽은 기름으로 칠여서 마치 家具와 같은 대접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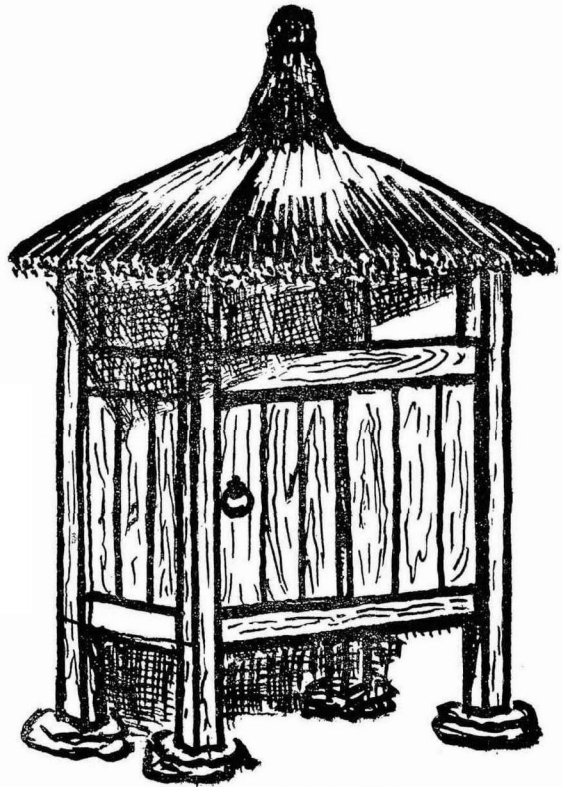


圖 1: 金浩春宅「京」

있고 나무도 좋은 나무를 가려서서 제법 모양새가 의젓하다.

담배농사 짓는 農家의 京은 막돌로 主초놓고 굽은 기둥을 네개 세운 후에 높직하게 下枋이 자리잡고 板壁대신 중깃엮고 안밖으로 砂壁을 쳤다. 四壁중 前面 중앙에만은 문문을 드리고 문홈을 파서 十枚의 빈지문을 드렸다. 빈지문을 판자로 十枚 橫壘하는 수법은 咸陽 鄭克相氏宅 京이나 王禎農書의 京과 같은 모습의 것으로 一般型에 속하는 것이다.

지붕은 낮으막한 草葺이고 다른 사실은 없으나 向左 기둥 側面에 등잔 놓을 자리를 마련하였다. (圖 2 참조)

이 두 京은 咸陽 鄭克相氏宅<sup>④</sup> 京과는 약간의 차이를 갖었다. 鄭氏宅 京은 막 깨트려진 돌을 뜻어다 主초를 놓고 세워오픈 넓이의 기둥을 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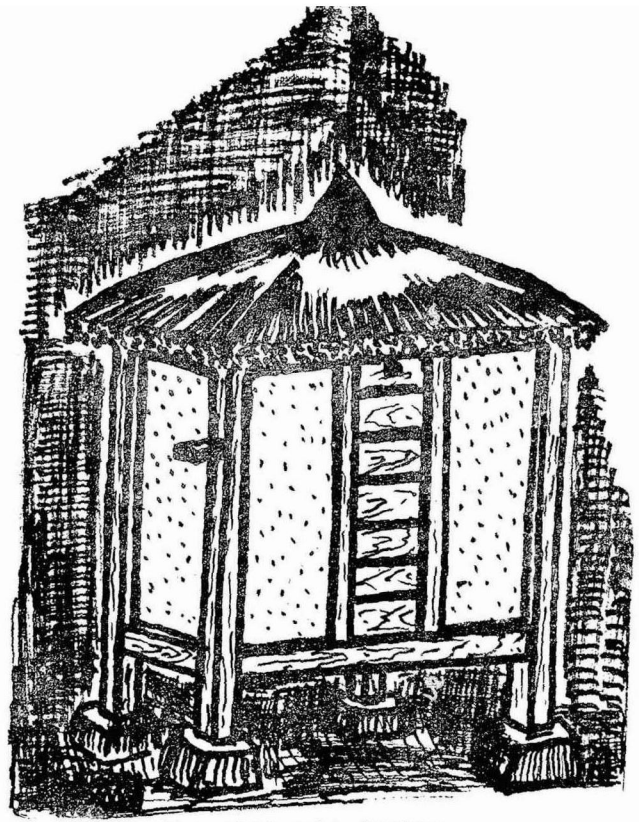


圖 2 : 담배농사짓는 農家「京」

세워 장방형의 평면을 구성하고 같은 규격의 나무로 地表에서 떨어진 곳에 下枋을 짜둘러 올개미를 만들었다. 下枋과 四柱에 의지하여 前面 三本の 間柱와 側面 각기 二本씩의 間柱(幅二·七寸)를 세우고 널빤지를 橫疊하여 板壁을 드렸다.

기둥머리와 板壁上端에 역시 角木으로 창방을 結構하고 지붕 구조를 받았고 지붕은 낮은 우진각 草葺을 하였다.

前面板壁, 三本の 間柱는 向左로부터 좁게, 다음간은 넓게, 셋째간은 좁게, 넷째간을 넓게 柱間을 설정하고 있는데 좁은 곳에는 間柱側面에 물홈을 파서 관자가 빈지드리게 되어 開閉하도록 의도하였다. 開閉口의 널빤지는 각기 十枚씩이고 맨위 것에는 손잡이와 자물쇠를 달아 경우에

따라서는 잠가두기도 하게 되었다. (拙稿·咸陽介坪里 鄭氏宅小倉·美術資料第十五輯所載 實測圖 참조)

이들 京의 모습은 王禎農書(林園十六志에서도 引用하였음)의 「京」의 圖示된 形狀과 흡사한 점이 있다. 圖示된 「京」은 굽은 네개의 기둥을 세우고 地表에서 떨어진 위치에 하방을 결구하고 板壁을 하였고 正面御間에는 十枚의 널빤지로 빈지문을 들었다.

同書에는 그림에 이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京倉之方者 廣雅云字從廣倉也 又謂四起曰京 今取其方而高大之義以名倉曰京則其色也 夫困京有方圓之別 北方亢就地 植木編條作甍故圓即困也 南方墊溼離地 嵌板作室 故方即京也

2

王禎農書의 京의 모습에서 順興의 두 小倉과 咸陽 鄭克相氏宅 小倉을 역시 「京」이라고 불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京이라는 글자는 원래 倉庫의 의미가 있어 廣雅釋言에

京 庾 廩 鹿 膾 廡 廨 困 倉也

라고 倉庫의 別名으로는 으뜸으로 짚이고 있다. 王念孫의 疏證에

說文 圖謂之困 方謂之京 管子輕重丁篇云 有新成困京者一家 史記 倉公傳 見建家京方石, 徐廣音義云 京者 倉廩之屬 釋邱云 四隄四 陵 四起曰京 義興方倉 謂之京同也云

이라고 있다. 方形的 倉을 京이라고 하여왔고 그 形狀은 王禎農書에 보이는 것이 一般型이었던 모양이다. 이 一般型和 흡사한 鄭氏宅의 納穀小倉을 그래서 우리도 京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보려는 것이다.

이 京은 現在까지의 調査로는 江原·京畿·忠清·慶尙道 地域에 分布되어 있음을 알겠는데 湖南과 濟州에도 좀 더 잘 살펴보면 있거나 있었던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

中部以北地域에도 이런 모습의 京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이렇다할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江原地方에서는 채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장면이 곳곳을 볼 수 있고 ⑥ 잔혹 귀틀의 수법으로 만들어진 京이 散在하여 있다는 정보이나 實見할 기회가 아직 없었다. 順興農家の 京이 土壁으로 變身한 것처럼 材料에 따른 變形은 있을 수 있었던 일로 받아드릴 수 있겠다.

百濟에서는 職官중에 椽部라는 것이 있었고, 椽·椽으로도 썼다고 하며 日本에도 그런 제도를 과급시켰다고 하는데 中央政府에 들어오는 田賦의 禾穀을 쌓아두던 창고를 관리하던 직책을 갖었다고 한다 ⑥.

百濟倉庫의 형태가 어떠한지는 지금 알 도리가 없으나 京이라는 의미의 글자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京의 特徵인 四起 즉 地表에서 떨어진 높이에 만들어진 『建物の床』을 갖은 建物이라고 하면 우리는 곧 又玄 高裕變先生이 引用한 後魏書의 「百濟其民上著地多下濕」이라는 표현과 朝鮮賦의 「以其多高 故須梯昇」이라는 百濟住居形態의 기록을 상기하여 낼 수 있다 ⑦.

後魏書와 朝鮮賦의 표현에 따르면 百濟住居는 「地多下濕」하여서 「上著」하게 地表에서 떨어진 공간에 『建物の床』을 만들고 살았으며 그 『建物の床』이 地表에서 「以基多高」하여서 그 냥은 오르내릴 수 없어서 「故須梯昇」하였다는 것이다. 又玄先生은 이런 住居形態를 가리켜 ⑧ 「高床式」이라고 指稱하였는데 百濟 地表에서 떨어진 空間에 『建物の床』을 꾸민 住居形態가 「高床式」이라면 앞에서 본 四起한 京도 역시 「高床式」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順興·咸陽의 小倉들도 「高床式」이라는 유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더운 지방에서 地濕하다는 條件은 建築物에 절대적인 制約을 가하기도 한다. 墨子 辭過(第六)에

就陵阜而居 六而處下 潤濕復民 故聖王作爲宮室

하였다고 하느니 습기를 피하여 宮室을 짓게 되는 결과까지를 낳게도 되었다. 이럴때의 宮室은 地濕을 피하여 地表에서 떨어진 공간에 居處를 마련하는 組織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이런 형태는 「高床式」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宮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는 대하여는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알 도리가 없지만 같은 「高床式」이었다면 百濟의 「高床式」과 같은 類型이었을 것이고 百濟의 宮室은 저런 中國宮室처럼 「高床式」의 類型이었을 것이라고는 짐작하여 볼 수 있다.

新羅 文武王이 靑建하기 시작한 感恩寺의 金堂은 높은 石柱에 흙을 파고 건물틀을 얹어 石床을 꾸미는 技法을 보여주고 있다. ⑩ 이런 構造를 그대로 地表 위에 노출시킨다면 훌륭한 「高床式」의 건물이 될 것이다.

百濟의 故土인 全北益山郡에 百濟末王인 武王이 靑建하였다는 大伽藍彌勒寺址가 있다. 現存하는 西塔 뒷편에 金堂址로 불리우는 집터가 있는데 여기에 地表에서 三尺餘 우뚝이 솟아있는 礎石이 整然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들 주초의 머리에는 건물이나 下枋을 結構할 수 있는 엷터 흙이 과져 있다. 이 흙에 下枋을 끼우고 感恩寺 金堂類의 床을 꾸민다면 이것이야말로 「高床式」建물이 되겠다. 彌勒寺址의 주초처럼 높직한 것이 扶餘의 臨江寺址(東大博物館發掘)와 같은 益山의 王宮里五層塔下 建物址에도 있다 ⑪. 이 礎石은 新羅의 圓形柱座가 있는 礎石과는 판이한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넓적하고 판판한 石臺를 하나 더 갖고 있는 殊異한 것이다. 圓形柱座가 있는 礎石이 갖는 基壇組織이 百濟의 彌勒寺址型 柱礎에도 적용되었으리라 하고는 速斷할 수 없는 것이므로 彌勒寺址型 柱礎는 제나들의 基壇組織을 따로 갖았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餘白이 있다.

百濟寺址에서 基壇組織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新羅式 基壇과 같은 組織이 生成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暗示를 얻을 수 있고 이는 彌勒寺址型 柱礎가 독특한 基壇이나 基壇이 필요없는 建造物樣式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인상을 짚게 하고 있다.

「須梯昇」하는 「以基多高」의 住居形態가 발전적으로 百濟 權威建築에

작용하였던 百濟의 權威建築이 住居에 영향을 미쳤건간에 住居의 記錄과 權威建築의 遺構가 모두「高床式」建築의 證좌를 남기고 있는 것이라면 百濟建築 類型中에는「高床式」建築系가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圓形柱座型礎石의「底床式」與件과는 또 다른系譜를 가진 建築樣式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高床式」인 京이 基壇의 組織을 갖고 있지 않고 臨江寺址에서 基壇이 點檢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彌勒寺址型 礎石類의 建物組織에는 新羅統一期에서와 같은 基壇은 등장하지 않았던 듯 하다. 있는데야 그저 장대돌림 정도로 끝났던 것이나 아닌가 생각된다.

3

江原道 지방에서 귀틀로 짜은 京이 발견된다는 정보에서 京의 板壁은 地域의 自然與件에 따라 變化될 수 있고 귀틀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양해된다. 귀틀집은 지금도 山間에서 볼 수 있고 옛날에도 있어서 辰韓에서는「作屋 橫累木爲之」(三國志 魏志)한다고 하였다. 蓋馬高原 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막대한 降雪量을 견디기 위하여 귀틀집을 짓는다 하며 옛날 扶餘에서도 靺鞨에서도 귀틀집을 짓고 烏拉에서도 귀틀집을 지었다고 한다. 高句麗 領土에서도 귀틀집을 지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魏書(卷三十)에 보면「其民土著 有宮室倉庫牢獄」이라는 설명이 있다. 辰韓에서 처럼「牢獄」이라는 표현은 중국의 관공이 귀틀집 처럼 생겼어 나온 對比인데 高句麗의 발상지인 扶餘에는 귀틀로 지은「土著」의 宮室과 倉庫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豆莫婁(北扶餘와 穢貊 등지의 種族)에도「其人土著 有宮室倉庫」(魏書卷百)가 있었다고 하니 高句麗와 이웃한 지역에는 이런 형태의 건물이 있었다.「土著」를 百濟의「土著」처럼 생각한다면 이 建物들도「高床式」系의 建物이 되겠다.

江原道地方 京이 귀틀인것은 비단 오늘날의 형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들 옛 部族들의 영향이나 高句麗의 遺習에 따라 傳承되어온 것이라고 주장하여 볼만 하겠다.

최근에 麻線溝第一號墳이라는 高句麗의 古墳이 발굴되었는데 그 南쪽

側室 南壁上部에서「高床式」系의 建物이면서 귀틀로 지은 建物이 그려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다.

이「高床式」系의 귀틀집이 高句麗에 존재하던 實存의 것을 묘사한 것이라면 앞의 文獻에서 살펴본「土著」의 사실과「宮室倉庫牢獄」의 建物이 高句麗에도 있었음을 증좌하는 것이고 百濟의「高床式」系建築類의 礎石以上の 架構를 조금이나마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겠다.

古墳의 그림에 귀틀집이 一棟 雙室로 되어 있는 점이 注目된다. 日本의 正倉院이라는 이른바 校倉造의 倉庫가 원래는 一棟 雙室이었다는 점에 상도되기 때문이다. 이 壁畫를 소개한 金正基氏는 이 건물을 正倉院의 雙倉과 비교하여 倉庫建物로 추정하였다. 建物前에 놓인 그림의 내용이「수레」의 한 부분을 묘사한 것이라면 建物이 倉庫인 것이 한층 더 실감 있으면서 불행히 그 일부만이 소개되어 있어 유감이다.

이 建物이 이른바 校倉造類의 창고라고 하면 前記한 京의 定義에 따라 方形이고 四起하였다는 特徵을 잡아 京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가 진전된다면 우리는 곧 대단히 중요한 記錄의 한 귀절을 생각해 낼 수 있다. 三國志 魏志 高句麗傳에

「無大倉庫家有小倉名之爲桴京」

라고한 桴京이라는 小倉이 있었다는 표현을 음미하여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桴라는 글자는「說文解字」에「桴棟也」라 하였고「爾雅」에는「釋言棟謂之桴 注謂屋脊也」라 하였으며「文選」에「西都賦 列桴棟以布翼 荷桴棟而高驪」이라고 하였다. 또 桴에는 옛목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들에 의하여 桴를 해석한다면 班固가 지적하였듯이「高及天半 華麗也」라고한 것처럼 집집이 덩그렇게 지은 富를 상징하는 京을 지칭함이며 그 構造가 귀틀집으로 생겨 두가지를 함께 함축할 수 있는 글자인 桴를 썼던 것이 아닌가 추정하여 본다.

이 桴에 四起한 특징을 가진「高床式」系 建物임을 뜻하는 京이라는 倉

廩의 이름을 더하여 桴京이라는 小倉名을 作製하였던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 桴京이라는 단어는 高句麗人이 造語한 것이라는 見解도 있어 同感이므로 中國에 없는 四起한 高句麗式 名稱을 桴京이라고 부어 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桴京이라는 小倉이 麻線溝第一號墳 壁畫에서 보듯 双倉의 구조였다면 日本 正倉院의 이른바 校倉造라는 樣式과 系譜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日本에는 靑龍窟이 극히 일부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보고가 있고 靑龍窟의 양식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었다고 하므로 校倉造樣式이 어떻게 生成되어 발전하게 되었는지 麻線溝의 桴京과 더불어 찬찬히 考察하여 보아야 하겠다. 日本 上代の 文物이 高句麗와 百濟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유의하고 樣式의 移入여부 등도 가려져야 할 일이다.

이 작업을 위하여서는 順興·咸陽 등지의 小京과 같은 建物の 자료를 풍부히 하고 百濟의 「高床式」系 建物 자료를 더 넉넉히 하여야 이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順興의 京과 咸陽의 京 등 하잘것 없는 조그만 건물에서 百濟 「高床式」의 초석을 탐색하고 그에 힘입어 高句麗의 古墳壁畫에 보이는 一棟 双室의 建物を 京의 古形 혹은 「高床式」系 建物の 片貌를 찾고 거기서 다시 記錄으로밖에 알 수 없었던 高句麗의 小倉 桴京의 한 類型을 탐색하여 보려는 시도를 감행하여 보았다. 비약적인 부분을 내포하게 되었다. 풍부한 遺構의 조사가 아직 진척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막 시작할 고찰의 성과를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家家的 小倉인 이 京이 차츰 널리 거나 하여 자취를 감추고 變身하여 버리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個人의 힘으로는 전국의 京을 낱알이 조사할 능력이 없고 차츰 자료는 슬어져 가고 있음으로 同學諸位에게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그 校勘과 함께 관계자료 수집의 보조를 맞추어 볼까 하는 衷情이 있기 때문이다.

다.

註

- ① 一九七一年九월에 梨大博物館主管으로 述干銘이 있는 壁畫古墳을 發掘하였다. 筆者는 同調査를 參觀하였다.
- ② 金浩春氏宅은 邑內里 順興우체국에서 豊基로 가는 街道에 이웃하여 있다. 王禎農書의 從來流行本은 武英殿聚珍版으로 永樂大典中에서 抽出한 것이다. 四庫提要에는 「農書二十二卷 永樂大典本 元王禎撰 禎字伯善 東平人 官豊城縣尹: 今外間所有王禎農務集郎從是書摘抄者也 唐中和節所進農書 世無傳本矣 宋人農書 惟農務所作存 元人農書存於今者三本 農桑輯要·農桑衣食撮要二書 農物產一明時令 皆取其通俗易行 惟禎此書引據賅洽 文章爾雅 繪書亦皆工緻 可謂華實並資 明人刊本舛訛漏落 疑誤宏多 諸圖尤失其眞 永樂大典所載 猶元時舊本 據以繕字校勘 以還其舊觀焉」이라고 하고 原序文에는 「皇度癸丑三月望日 東魯王禎書」라 하였다.
- ③ 林園十六志의 著者는 이 책을 높이 평가하여 곳곳에 農書라 하여 引用하고 있다.
- ④ 咸陽郡池谷面介坪里所在 鄭克相氏宅은 유명한 儒學者 鄭汝昌先生古宅에 이웃하여 있는데 원래 이 집은 盛時한 울타리 안에 있던 마을집이라 하며 京은 光復이후에 만든 것이라 함.
- ⑤ 平昌郡 芳林面 雲橋里 寧越 周生面 法興里와 杆城地方에서 一部調査되었다. 그중 平昌郡의 것을 拙稿·韓國古建築斷章(二三回)、空間 一九七一年九月號에 소개한 바 있다.
- ⑥ 稻葉岩吉·釋棟·京城寶黃室藏版·一九三六年十一月刊所載 『百濟의 椽及び椽部』論說를 참조함.
- ⑦ 高裕榮·韓國建築美術史草稿·考古美術資料第六輯의 引用文에서 轉載함 同書用語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⑧ 國立博物館刊 「感恩寺」를 참고함.
- ⑨ 一九六五年 塔解體復原時 埋沒되었던 基壇 주위에서 三點 발견되었다.
- ⑩ 村田治郎·東洋建築系統史論(二)·建築雜誌 第四五輯 五四五號 참조
- ⑪ 魏志卷三〇 「其民土著 有宮室倉庫牢獄」
- ⑫ 舊唐書 卷一九九下 「無屋宇 並山水 掘地爲穴 架木於上 以土覆之 狀如中國之塚墓」 北風場沙錄에 「覆以板 或椽皮 牆壁亦木爲之」(遼史拾遺卷一八)
- ⑬ 扈從東巡日錄 烏拉條 「其居聯木爲棚 上覆以板 後加以草 牆壁亦以木爲之 朽泥其上」
- ⑭ 金正基·高句麗壁畫古墳에서 보는 木造建物·金載元博士回甲論叢所載 참조
- ⑮ 稻葉岩吉 上掲書 참조
- ⑯ 今和二郎·日本の民家·鈴木書店刊·一九三二年版 참조